

---

## Osteochondrosis on the First Metatarsal Head: 1 Cas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Dong Yeon Lee, Won Joon Yoo, In Ho Choi

---

제1 중족골 두의 무혈성 괴사는 흔치 않는데 주로 절골술 등의 수술적 처치와 관련이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무혈성 괴사(골연골증)는 그 중에서도 빈도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14세 남아에게 발생한 제1 중족골 두의 골연골증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 ❖ Case

14세 남아가 3년 전부터 발생한 간헐적인 제1 중족골 두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아는 특별한 외상력은 없었으며, 관절이 붓거나 하지는 않지만 통증 때문에 발끝으로 설 수 없었다. 이학적 검사상 제1 중족-족지 관절의 운동 범위는 족배굴곡 60도 족저굴곡 40도로 반대측에 비해 족배굴곡이 약간 저하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다. 단순 방사선 사진상 sclerotic rim으로 둘러싸인 dorsal sclerotic crater가 관찰되었으며 MRI상 T1, T2에서 모두 low signal을 보이는 subchondral line이 관찰되어 osteochondrosis로 진단하고 dorsal closed wedge type의 redirectional osteotomy를 시행하였다.

술 후 2개월에 촬영한 방사선 사진 상 intra-articular necrotic part의 regeneration 소견인 관찰되었으며, 술 후 15개월 추시상 환자는 걷거나 발끝으로 설 때 통증이 없었으며, 족저굴곡이 20도 정도로 감소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절운동도 정상적이었다. 추시 MRI 소견상 low signal intensity를 보이던 병변은 소실되었으며 marrow signal의 이상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

### ❖ Discussion

제1 중족골 두의 외상으로 인한 골연골병변 중 osteochondritis dissecans의 진단과 치료는 잘 알려져 있으나, osteochondrosis의 자연 경과나 치료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두 질환의 감별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osteochondrosis의 경우 외상력이 뚜렷치 않으며, MRI상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는 점, 연골 병변에 대한 처치 없이 보존적 치료나 redirectional osteotomy 등의 치료로 잘 healing 된다는 점에서 차이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